

생명의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남 155호 농업정보

주간 2017. 10. 16. ~ 22.



목 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7~14도, 최고기온: 20~23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0~2mm)과 비슷하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예 보 : 무·배추 모자이크바이러스, 배추 노균병, 뿌리혹병,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목화바둑명나방 등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과일류 가격 및 생산량 전망
- ▶ 과채류 가격전망, 정식의향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1

- ▶ 우리 농식품 수출 기지개
- ▶ 순천시, 농·수특산물 미국 애틀랜타 남부시장 강타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골드키위 해금 생력 결실 조절 방법의 노동력 절감효과
- ▶ 딸기 수출 유망 품종 죽향 토양재배 정식시기
- ▶ 흑염소고기 육질개선 적정 유혈 거세시기
- ▶ 남부 2모작 지대에 적합한 콩 생력·다수확 재배기술
- ▶ 벼 적기수확 및 적정건조로 고품질 쌀 생산
- ▶ 밀가루 100% 대체한 제과용 쌀 크립 3종 개발
- ▶ 전국 최초 농업분야 태양열계간축열시스템 개발 추진
- ▶ 보리차용 검정색 길보리 흑다향 개발
- ▶ 콩 수확, 기계로 더 편하고 쉬워진다
- ▶ 생산비 줄이는 팥 콤바인 수확기술 개발
- ▶ 추운 겨울, 맥류는 어떻게 관리할까
- ▶ 사과 바이로이드, 1시간 만에 간편하게 진단
- ▶ 다양한 국산 단감 품종 개발, 골라먹는 재미 쏠쏠

- ▶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이젠 그만
- ▶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소득 보전
- ▶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말까지 80% 완료키로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3

- ▶ 나주시, 가축재해보험료 지방비 확대 지원
- ▶ 광양시, 매실산업특구 2017년 우수특구로 선정돼
- ▶ 곡성군,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 포장 디자인 교육 실시
- ▶ 구례군, 전통시장 가을축제 열려
- ▶ 고흥군, 도시민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행사 인기
- ▶ 보성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본격 가동
- ▶ 함평군,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20억 7천만원 준비 지원

9 해외 농업정보 40

- ▶ 일본, 선물용 과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 ▶ 미국, 유기농제품 수입규제 더욱 엄격해질 전망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10. 16.(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2.1% 상승함
 - 옥수수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1.0% 상승함
 - 대두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8% 상승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4

- ▶ 한농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원서접수
- ▶ 2017 국제농업박람회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 ▶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씨앗, 내일을 품다』
- ▶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 상강(霜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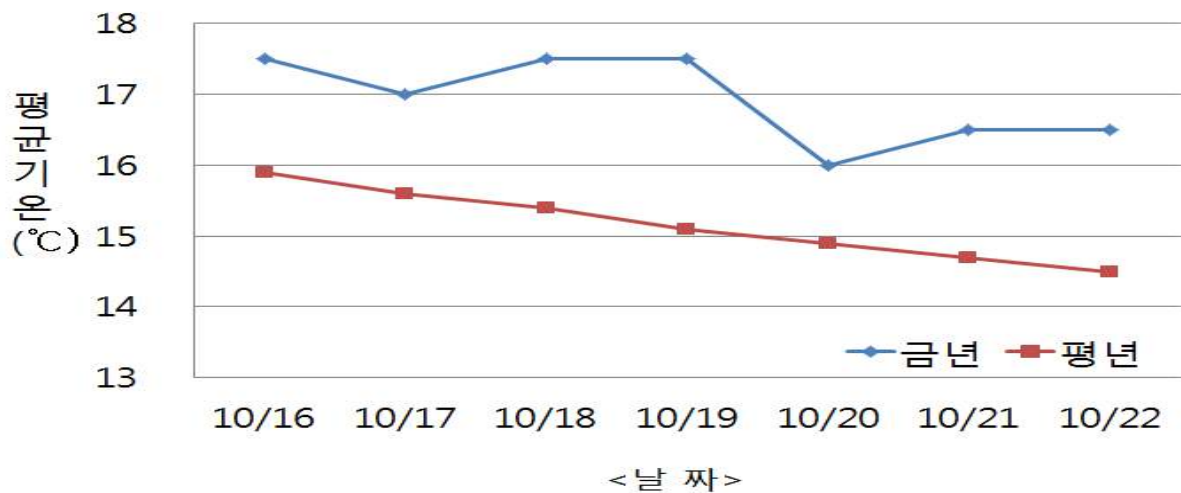
1

주간 기상 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10월 16일 ~ 10월 22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16.9℃ (평년대비 1.8℃ 높음)
- 최고기온 : 21.6℃ (평년대비 0.4℃ 높음)
- 최저기온 : 12.3℃ (평년대비 2.1℃ 높음)
- 강 수 량 : 0.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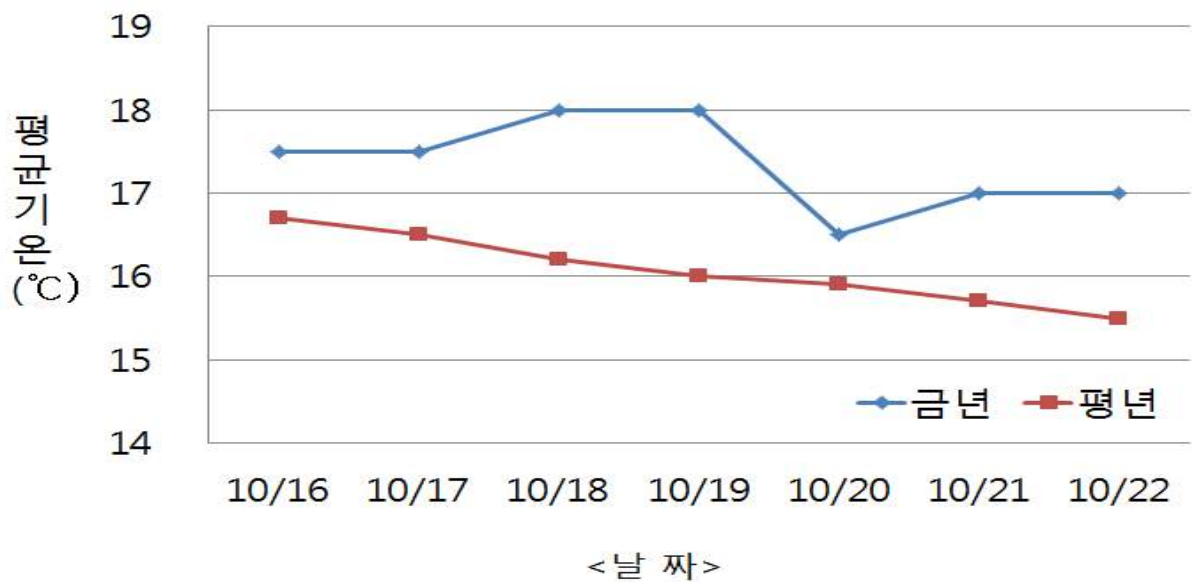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6.9	15.2	1.8	21.6	21.1	0.4	12.3	10.2	2.1	0.8
10. 16.(월)	17.5	15.9	1.6	21.0	21.9	-0.9	14.0	11.0	3.0	0.9
10. 17.(화)	17.0	15.6	1.4	22.0	21.6	0.4	12.0	10.6	1.4	0.7
10. 18.(수)	17.5	15.4	2.1	22.0	21.3	0.7	13.0	10.4	2.6	0.6
10. 19.(목)	17.5	15.1	2.4	22.0	21.1	0.9	13.0	10.2	2.8	0.8
10. 20.(금)	16.0	14.9	1.1	21.0	20.9	0.1	11.0	10.0	1.0	0.9
10. 21.(토)	16.5	14.7	1.8	22.0	20.7	1.3	11.0	9.7	1.3	0.9
10. 22.(일)	16.5	14.5	2.0	21.0	20.5	0.5	12.0	9.5	2.5	1.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10월 16일 ~ 10월 22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17.4℃ (평년대비 1.9℃ 높음)
- 최고기온 : 21.4℃
- 최저기온 : 13.3℃ (평년대비 1.3℃ 높음)
- 강 수 량 : 0.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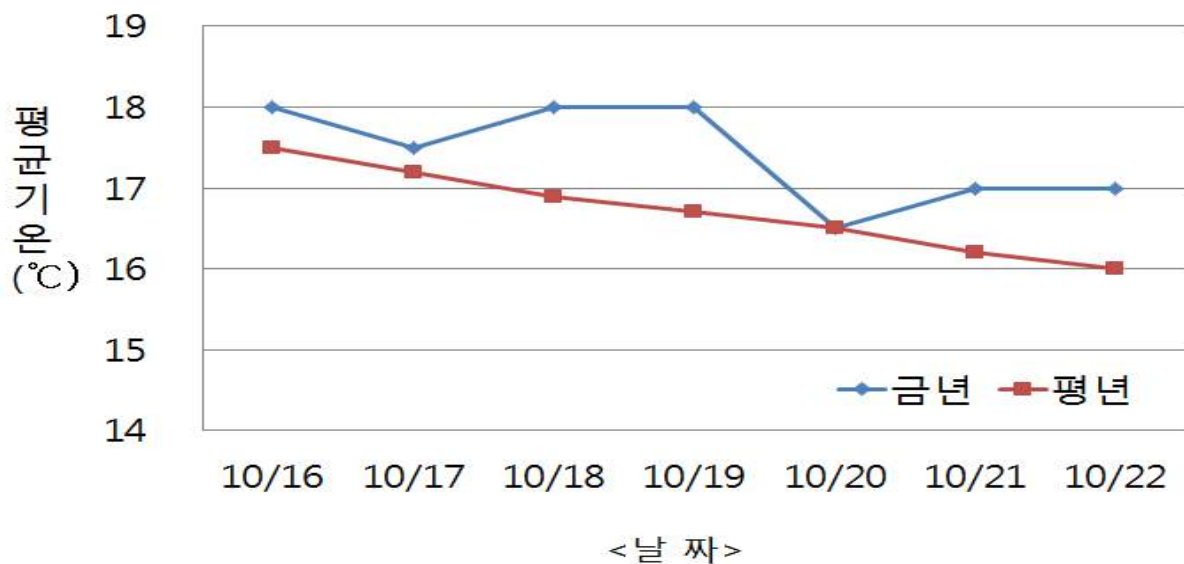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7.4	16.1	1.9	21.4	21.5	0.0	13.3	11.9	1.3	0.8
10. 16.(월)	17.5	16.7	5.0	20.0	22.0	-2.0	15.0	12.7	2.3	0.8
10. 17.(화)	17.5	16.5	1.0	22.0	21.7	0.3	13.0	12.4	0.6	0.7
10. 18.(수)	18.0	16.2	1.8	22.0	21.5	0.5	14.0	12.2	1.8	0.5
10. 19.(목)	18.0	16.0	2.0	22.0	21.4	0.6	14.0	11.9	2.1	0.6
10. 20.(금)	16.5	15.9	0.6	21.0	21.4	-0.4	12.0	11.7	0.3	0.8
10. 21.(토)	17.0	15.7	1.3	22.0	21.2	0.8	12.0	11.4	0.6	0.9
10. 22.(일)	17.0	15.5	1.5	21.0	21.0	0.0	13.0	11.3	1.7	1.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10월 16일 ~ 10월 22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17.4℃ (평년대비 0.7℃ 높음)
- 최고기온 : 20.6℃ (평년대비 0.1℃ 높음)
- 최저기온 : 14.3℃ (평년대비 0.8℃ 높음)
- 강 수 량 : 1.0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7.4	16.7	0.7	20.6	20.5	0.1	14.3	13.5	0.8	1.0
10. 16.(월)	18.0	17.5	0.5	20.0	21.4	-1.4	16.0	14.1	1.9	0.9
10. 17.(화)	17.5	17.2	0.3	21.0	21.0	0.0	14.0	13.9	0.1	0.8
10. 18.(수)	18.0	16.9	1.1	21.0	20.7	0.3	15.0	13.7	1.3	0.5
10. 19.(목)	18.0	16.7	1.3	21.0	20.4	0.6	15.0	13.5	1.5	0.7
10. 20.(금)	16.5	16.5	0.0	20.0	20.3	-0.3	13.0	13.3	-0.3	1.2
10. 21.(토)	17.0	16.2	0.8	21.0	20.0	1.0	13.0	13.0	0.0	1.3
10. 22.(일)	17.0	16.0	1.0	20.0	19.8	0.2	14.0	12.8	1.2	1.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7. 10. 1. ~ 10. 31.)



농촌진흥청에서 벼 이삭누룩병, 무·배추 바이러스병, 노균병,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시설작물의 바이러스병, 총채벌레 등 소형 해충, 과수의 돌발해충 등에 대한 예보를 발표했으니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단계별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구 분		식량작물	원예작물
주 의 보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벼 이삭누룩병 · 밀·보리 종자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배추 모자이크바이러스(TuMV) · 배추 노균병, 뿌리혹병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 토마토황화잎말림병(TYLCLV) · 주키니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 · 마늘·양파 종구 소독
	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 목화바둑명나방 등 · 총채벌레, 아메리카잎굴파리 등 · 응애, 진딧물, 작은뿌리파리 · 과수 노린재류, 꼬마배나무이 ·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과일류 가격 및 생산량 전망

□ 가격전망 : 사과·감귤·포도 가격 전년대비 상승, 배·단감은 하락

- 사과(양광/10kg)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대비 높으나, 전월 보다는 낮을 전망
- 배(신고/15kg) 가격은 출하량 감소하나, 추석 이후 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낮은 2만 2천~2만 5천원
- 노지감귤 가격은 출하량 감소 및 품질 좋아 전년대비 높은 kg당 1,500~1,700원
- 포도(MBA)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대비 높은 5kg당 1만 5천~1만 7천원
- 포도(캠벨얼리)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대비 높은 5kg당 1만 4천~1만 6천원
- 단감(부유/10kg)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대비 낮은 1만 5천~1만 8천원

□ 생산량전망 : 사과·감귤·포도 생산량 전년대비 감소, 배·단감은 증가

- 사과 생산량은 단수 감소로 전년대비 5% 감소 전망
- 배 생산량은 단수 증가로 전년대비 4% 증가 전망
- 노지감귤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대비 3% 감소
-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대비 15% 감소
- 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하나, 단수 증가로 전년대비 4% 증가

■ 과채류 가격전망, 정식의향

□ 가격전망 : 주요 과채류 가격 출하량 증가로 전년대비 하락 전망

- 일반토마토와 대추형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대비 낮은 각각 10kg당 21,000~23,000원, 3kg당 12,000~14,000원 전망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대비 낮은 100개당 25,000~30,000원 전망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대비 낮은 20개당 8,000~12,000원
- 청양계핏고추 가격은 출하량이 전년과 비슷하여 전년 수준인 10kg당 37,000원 내외 전망
- 일반풋고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대비 높은 10kg당 39,000원 내외 전망

□ 정식의향

- 10월 일반토마토 정식면적은 전년대비 증가, 11월은 감소 전망
- 10~11월 대추형방울토마토·일반풋고추 정식면적은 전년대비 증가 전망
- 10~11월 오이·애호박·청양풋고추 정식면적은 전년대비 감소 전망
- 과채류 10~11월 정식의향면적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

구 분	토마토		오이		애호박	풋고추	
	일반	대추형 방울	백다다기	취청		청양	일반
10월	4.3	0.8	-1	-4.7	-7.8	-7	6.2
11월	-2.3	1.1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우리 농식품 수출 기지개

- 9월까지 50억 4150만달러... 전년대비 6.9%↑ -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농식품 수출(잠정치)은 50억 415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7억 1730만달러) 대비 6.9% 늘어난 수치다. 또한 9월 한 달 동안의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6.8% 증가한 6억 5000만달러로, 농식품 수출 실적 집계 이후 9월 당월 수출실적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이 같은 증가세를 보인 배경에는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우리 농식품 소비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아세안·중동 등 수출 시장이 다변화된 영향이 크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실제 대일 농식품 수출은 최근 현지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산 토마토 수요 증가, 반가공 형태의 커피조제품 공급 확대 덕분에 전년 동기(8억 4190만달러)보다 15.8% 늘어난 9억 7460만달러를 기록했다.
- 아세안시장은 베트남과 태국·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우리 농식품 소비가 확대된 가운데, 특히 인삼류·포도·배 등 신선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탄력을 받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9억 176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7억 8250만달러)보다 9.9% 감소한 7억 490만달러에 그쳤다.
- 품목별로는 신선식품의 경우 과실류와 가금육, 화훼 등의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기(7억 7680만달러)와 비교해 3.2% 줄어든 7억 5220만달러를 기록한 반면, 가공식품은 라면과 소스류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8.9% 증가한 42억 8930만달러로 집계됐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순천시, 농·수특산물 미국 애틀랜타 남부시장 강타

- 순천의 맛과 향을 담아 애틀랜타 판촉행사 완판으로 마무리 -

- 순천시 전영재 부시장을 단장으로 꾸려진 판촉팀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미국 애틀랜타 시온마켓에서 『순천의 맛과 향을 담아』라는 슬로건으로 우수 농·수특산물 판촉행사를 가졌다.
- 관내 수출기업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판촉행사는 매일식품, 순천농협 남도식품, 미가식품, 쌍지뜰, 경덕농수산 총 6개업체가 참여하여 김치류, 반찬류, 장류, 젓갈류, 쌀과자, 합초가공품, 수산가공품 등 총 40여개 품목을 판매하여 22만달러(한화 2억 5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 순천시는 2014년부터 미주시장을 개척하여, 캘리포니아·LA 중심으로 판촉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올해 새로이 남부시장인 애틀랜타 한인시장을 공략했다.
- 이번 애틀랜타 시온마켓 판촉행사는 캘리포니아 6개소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였고, 행사기간 중에 매출 20%가 증가됐다고 현지 매장 관계자가 말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LA·시카고·애틀랜타를 삼각축으로 하는 안정적인 수출망을 구축했고, 오는 11월에 뉴욕 한남체인에서 판촉행사를 전개하면 미주 동서남북 전지역에 순천시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순천시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10. 16.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0/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품	쌀(햇일반계)	20kg	37,400	-	32,800	41,687	↑ 14.0	↓ 10.3
	콩(백태)	35kg	172,600	172,200	152,000	162,733	↑ 13.6	↑ 6.1
	고구마(밤)	10kg	24,200	29,250	25,400	22,533	↓ 4.7	↑ 7.4
	감자(수미)	20kg	43,400	39,600	25,400	23,640	↑ 70.9	↑ 83.6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740	1,720	990	644	↓ 25.3	↑ 14.9
	양배추	10kg	8,000	11,550	10,850	6,788	↓ 26.3	↑ 17.9
	오이(다다기계통)	10kg	17,667	25,333	34,333	21,689	↓ 48.5	↓ 18.5
	애호박	20개	12,600	22,000	29,350	16,253	↓ 57.1	↓ 22.5
	건고추(화건)	60kg	1,380,000	1,330,000	584,000	791,333	↑ 136.3	↑ 74.4
	풋고추	10kg	30,200	69,950	46,500	34,133	↓ 35.1	↓ 11.5
	마늘(깐마늘)	20kg	129,000	127,000	140,000	115,800	↓ 7.9	↑ 11.4
	양파	20kg	24,800	25,750	19,450	20,563	↑ 27.5	↑ 20.6
	당근	20kg	59,600	47,550	50,600	43,213	↑ 17.8	↑ 37.9
	대파	1kg	1,880	2,240	2,380	1,811	↓ 21.0	↑ 3.8
	파프리카	5kg	22,400	34,900	31,500	26,760	↓ 28.9	↓ 16.3
	토마토	10kg	27,000	39,800	38,700	30,833	↓ 30.2	↓ 12.4
	방울토마토	5kg	21,200	31,750	30,050	18,620	↓ 29.5	↑ 13.9
	사과(홍로)	10kg	37,800	35,400	31,750	33,648	↑ 19.1	↑ 12.3
과 일 류	배(신고)	15kg	39,200	-	37,000	36,587	↑ 5.9	↑ 7.1
	포도(캠벨얼리)	5kg	19,200	21,050	16,250	15,737	↑ 18.2	↑ 22.0
	감귤	10kg	25,600	-	23,950	23,950	↑ 6.9	↑ 6.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0/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0,000	517,600	524,000	536,400	↓ 2.7	↓ 4.9
	느타리버섯	2kg	13,000	13,650	13,150	12,100	↓ 1.1	↑ 7.4
	새송이버섯	2kg	8,000	8,800	9,750	8,053	↓ 17.9	↓ 0.7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498	8,251	7,980	7,008	↑ 6.5	↑ 21.3
	돼지고기(삼겹살)	100g	2,198	2,136	1,988	1,788	↑ 10.6	↑ 22.9
	닭고기	1kg	4,970	4,949	5,631	5,793	↓ 11.7	↓ 14.2
	계란(특란)	30개	5,484	5,591	5,587	5,593	↓ 1.8	↓ 1.9
	우유	1리터	2,516	2,527	2,522	2,525	↓ 0.2	↓ 0.4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10. 16.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53 천원	5,419 천원	5,839 천원	↑ 0.6	↓ 6.6
	거세	6,545 "	7,187 "	6,602 "	↓ 8.9	↓ 0.9
송아지 (6~7월)	암	3,142 "	3,147 "	2,906 "	↓ 0.2	↑ 8.1
	수	3,709 "	3,791 "	3,643 "	↓ 2.2	↑ 1.8
육우(600Kg)		2,859 "	2,879 "	3,192 "	↓ 0.7	↓ 10.4
돼지(110kg)		323 "	376 "	345 "	↓ 14.1	↓ 6.4
육계(원/kg)		1,371 원	1,371 원	2,018 원	- 0.0	↓ 32.1
계란(원/특란10개)		1,168 "	1,243 "	1,229 "	↓ 6.0	↓ 5.0
생체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골드키위 해금 생력 결실 조절 방법의 노동력 절감효과

배경 및 필요성

- 골드키위는 그린키위에 비해 수세가 왕성하고 개화량이 많아 순지르기, 꽃봉오리 숙기, 꽃숙기, 인공수분, 적과 작업 노력 투입이 계속되므로 노력절감을 위한 결실 조절 방법 개선이 필요함

영농기술·정보 내용

- 순지르기 이후 꽃봉오리 숙기, 꽃숙기를 생략하고 물수분을 2회(중앙화가 20, 50% 피었을 때) 하는 것이 관행(3회)대비 인건비와 꽃가루, 색소 구입비를 줄일 수 있음

기대 및 파급효과

- 생력 결실 조절의 작업시간 관행대비 55%(관행 23.3일→생력 10.5일/10a), 경영비 53% 절감(관행 2,032천원 → 생력 955천원/10a)



【개화정도 20% 1~2개 개화】



【개화정도 50% 3~4개 개화】



【개화정도 80% 5~6개 개화】

골드키위 해금 중앙화 개화 정도 비교 사진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이소미, 조운섭, 조혜성

■ 딸기 수출 유망 품종 죽향 토양재배 정식시기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육성 딸기 수출 유망 신품종(죽향 등) 조기선발로 기존 수출 품종대체 및 수출딸기 경쟁력 제고(수출 확대)
- 기존 수출 품종인 매향의 단점을 극복하는 수출용 신품종의 조속한 선발과 농가 보급 확대를 통하여 수출 장애 요인 극복 필요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딸기 모주 정식기 : 3월 중순(보급묘 단계의 건전한 묘)
- 육묘상자는 점적관수가 가능하고 1컵당 상토량이 130ml(육묘상자 24구)
- 육묘상토는 딸기 전용상토(모주, 자묘용 전문 상토)
- 정식시기(남부지방 기준)는 9월 하순(23일)이 적기이며, 육묘일수는 60일 이상의 묘로 관부직경은 8mm 이상 것을 사용
- 제1화방 출퇴기는 9월 23일 정식이 10월 7일에 비해 15일, 수확기도 16일 정도 빨랐음
- 화방당 과수는 9월 23일 정식이 17.9개로 10월 7일 정식에 비해 1.4개 많았으며, 과중은 18.2g으로 무거웠으나 유의성은 없었음
- 과일 물러짐성 정도(경도, $\text{g}\cdot\text{cm}^{-2}$, $\varnothing 5\text{mm}$)는 9월 23일 정식이 405.2로 10월 7일(268.4)에 비해 컸음

□ 기대 및 파급효과

- 수량(10a) : 9% 증(9월 23일 정식 3,249 ← 10월 7일 2,970kg)
- 소득증가(10a) : 2,434천원(수량 증가분 279kg)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서종분, 손장환

■ 흑염소고기 육질개선 적정 유헄 거세시기

□ 배경 및 필요성

- 흑염소 사육규모가 부업형태에서 전업화 추세로 진행 중이며, 귀농인들의 유망 소득원으로 정착되고 있음
- 염소육의 소비형태가 약용에서 육용 위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육질개선 사양기술이 요구됨
- 흑염소 사육농가의 거세 실시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사육목적에 맞는 거세시기 설정이 필요한 실정임

※ 전남지역 흑염소농가 거세시기 및 체중 조사 결과

- 전남지역 흑염소농가의 거세시기는 4~14개월령, 거세체중은 15~45kg으로 조사되어 지역별, 농가별 거세시기가 다양하고 격차가 큼

□ 영농기술·정보 내용

- 흑염소고기 육질개선을 위한 유헄거세는 흑염소 생후 6개월에 거세를 실시하여 출하하는 것이 적합함
 - 6개월령 거세 시 근내지방도와 보수력이 높아지고 전단력과 가열감량이 낮아져 구이용 고기로 이용성이 높아짐

□ 기대 및 파급효과

- 염소탕에서 구이용 고기 판매로 소비형태 전환 시 고기 소비량 5배 증가
 - 소비량(1인분) : 전골, 탕 30g → 구이 150g ⇒ 약 5배 증가
- 흑염소고기 연소비량 10,772톤의 5% 구이용 전환 시 소비량 25% 증가로 2,693톤, 1,347억 생산량 증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김상욱

■ 남부 2모작 지대에 적합한 콩 생력·다수확 재배기술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남부 2모작 지대에 적합한 콩 생력재배 기술

- 기계 적응 품종 선택 : 가장 아래 꼬투리 높이가 15cm 이상이고 종실수분이 16~18% 되도록 말라도 꼬투리가 벌어지지 않는 품종
- 트랙터 1대에 점파기와 제초제살포기를 설치하여 동시에 작업
- 멀티콥터 활용 병해충 방제 : 항공방제 등록 약제 활용하거나 등록 약제 없는 경우 기존 약제를 제조업체에 사용방법 문의하여 적용
- 콤바인 수확 : 완전 낙엽되고 전체 꼬투리가 변색되었을 때(종실 수분 16~18%) 큰 잡초를 제거하고 수확
- 생력건조 : 차광 소형하우스에 40~50cm 높이로 야적하여 차광망으로 덮고 15일간 건조 후 정선

○ 남부 2모작 지대에 적합한 콩 다수확 재배 기술

- 윤작 : 3년에 1년은 여름작물(참깨 등)과 겨울작물(양파 등) 모두 돌려짓기
- 토양관리 : 심경, 검정시비(N-P-K≒3-3-3.4kg/10a), 다비성 작물 후작에도 기비
- 파종방법 : 6월 하순에 11,000주/10a(주당 2~4립) 파종
- 병해충 방제 : 개화 10일 후부터 노린재류 중심 10일 간격 3~4회, 멀티콥터 활용

□ 기대 및 파급효과

- 소득 130억원 증대(우리 도 30% 적용할 때)
- 노력 28% 절감(195 → 140시간/ha), 수량 56% 증대(1.85 → 2.89톤/ha)
- 병해충 방제에 멀티콥터 활용 : 노동력 20~27시간/ha 추가 절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동관, 최진경, 김용순

■ 벼 적기수확 및 적정건조로 고품질 쌀 생산

- 벼 이삭 낱알 90% 이상 황색으로 변했을 때 수확, 45~50℃ 온도에서 건조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극심한 봄 가뭄과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본격적으로 수확기에 접어든 벼를 적기에 수확해서 고품질 쌀 생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중만생종 벼의 경우 이삭이 팬지 55~60일이 지난 후가 수확 적기로 외관상으로 보면 벼 이삭 낱알의 약 90% 이상이 황색으로 변했을 때로, 벼를 너무 일찍 수확하면 청미 또는 미숙립이 증가하여 수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나빠지고, 또한 너무 늦게 수확하면 쌀겨층이 두꺼워지고 동할립, 기형립, 피해립 등이 증가하여 완전미율이 떨어지게 된다.
- 적기 수확시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건조온도인데, 일반용 종자는 45~50℃, 종자용은 40℃ 이하에서 저장 안정 수분함량인 15%까지 건조하여야 한다.
- 급격한 건조는 동할미, 과도한 건조는 열에 의해 낱알이 많이 손상되므로 적정온도에서의 건조가 중요하다.
- 특히 물벼의 경우 수분함량이 20% 이상일 경우 8시간 이내, 수분함량이 26% 이상인 경우는 변질이 빨라지므로 수확 후 4~5시간 이내에 건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콤바인 작업속도 또한 쌀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작업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면 탈곡통에 투입되는 벼의 양이 많아져 회전수가 올라가 벼알이 깨지는 등 미질이 떨어지므로 표준속도를 지켜야 한다.
- 적당한 탈곡통의 회전수는 1분에 500회전 정도이며, 종자용으로 사용할 벼는 300~350회전이 적당하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밀가루 100% 대체한 제과용 쌀 크림 3종 개발

- 소비자 평가 결과 맛과 건강 56%, 건강 27%로 호응 높아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이용하여 제과용 쌀 크림 3종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글루텐 프리(gluten free)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들에게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재 제빵용 크림은 대부분 믹스형태로 수입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제빵용 크림의 경우 밀가루를 이용한 제품이 대부분으로 쌀을 이용한 크림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제과·제빵 분야에서 이용되는 크림을 용도별로 적합한 쌀가루 품종 및 제분 방식을 선발, 밀가루를 100% 대체하여 제빵용 2종, 커피용 1종을 개발하였다.
- 또한 개발한 제품의 산업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의 커피전문점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커피용 쌀 크림이 커피와 잘 어울린다 87%, 기존의 휘핑크림보다 커피에 더 잘 어울린다 91.7%, 쌀 크림을 구매하는 이유는 맛과 건강 56, 건강 27%으로 쌀 크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국 최초 농업분야 태양열계간축열시스템 개발 추진

- 시설채소 재배 온실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태양열 이용 기술 개발 -

- 전남농업기술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전국 최초로 농업분야에서 태양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자립화하는 계간축열시스템을 인하대학교, (주)에스엔지에너지, 한국온실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 이 사업은 2015년에 시작하여 2017년에는 농업기술원 연구포장에 태양열계간축열시스템을 설치하고, 660㎡ 온실에 태양열을 공급하여 에너지 자립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 태양열계간축열시스템은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남은 태양열을 축열탱크에 보관하여 겨울철과 같이 열이 부족할 때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분야에서 태양열, 태양광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충북 진천군은 새롭게 조성된 친환경타운 6개의 공공건물에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공급하여 자립화를 추구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보리차용 검정색 겉보리 흑다향 개발

- 항산화 효과 있는 폴리페놀 등 기능성 성분 많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향이 좋고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해 보리차용은 물론 새싹보리용에도 적합한 검정색 겉보리 신품종 흑다향을 개발했다.
- 『흑다향』은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폴리페놀과 간 기능 개선에 좋은 사포나린 등의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보리차용으로 적합하다.
- 폴리페놀 함량은 비교 품종 『올보리』에 비해 1.2배 높은 0.162%이며 사포나린과 폴리코사놀은 각각 최대 1,650, 454mg 함유돼 있다.
- 또한, 초기 신장성이 좋아 새싹보리용에도 적합하다.
- 이삭 당 알 수가 많고 수확량은 10a당 623kg인 다수확 품종이며 쓰러짐에 강해 재배안정성도 높다.
- 재배 시 질소질 비료를 적절히 사용하고 흰가루병 및 보리호위충병 발생이 많은 지역이나 물 빠짐이 나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종자는 통상실시와 신품종이용촉진사업 등을 통해 2018년부터 보급될 계획이며, 자세한 분양 관련 문의는 국립식량과학원 작물 육종과(063-238-5225)로 하면 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대비품종 올보리(왼쪽)와 신품종 흑다향(오른쪽)】

■ 콩 수확, 기계로 더 편하고 쉬워진다

- 승용 2조식 콩 예취수확기 개발... 비용 75% 절감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산·학·연 공동으로 『승용 2조식 콩 예취수확기』를 개발했다.
- 이번에 개발된 콩 예취수확기는 3륜 주행방식을 적용했으며 탑승식이어서 누구나 쉽게 운전해 작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또한, 다양한 재배 양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취 폭과 바퀴 주행 폭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예취 폭은 60~80cm, 예취 높이는 0~30cm, 바퀴 주행 폭은 140~160cm까지 조절 가능하다.
- 2개의 칼날이 회전하면서 한 번에 2이랑씩 베어 모아주기 때문에 기존 보행형 콩 예취기보다 성능 또한 2배 이상 높아졌다. 회전 반경은 2m로 작아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이동하며 예취할 수 있다.
- 이 수확기를 사용하면 10a를 작업할 때 약 0.4시간이 소요돼 손 작업(8.9시간)보다 약 22배(95%)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비용도 인력 작업에 비해 75%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확기는 10° 이하의 경사지에서 사용해야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콩 예취수확기의 현장평가회를 11일 전남 무안에서 갖고 농가 의견 수렴 후 기술적 보완을 거쳐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 한편, 이 수확기는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5년 개발한 『수집형 자주식 두류콤바인』과 함께 사용하면 손으로 수확할 때보다 작업 노력을 95%까지 줄일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생산비 줄이는 팔 콤바인 수확기술 개발

- 홍언·아라리, 콤바인 수확 시 노동력 92.7% ↓, 소득지수 65% ↑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에 따르면 기계수확에 적합한 팔 품종 수확 시 콤바인을 이용하면 기존 인력수확에 비해 노동력은 92.7% 줄이고 소득지수는 65% 높일 수 있다.
- 현재 기계를 이용해 수확하는 팔 재배농가는 6.7%에 불과해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비용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팔 콤바인 수확은 기계수확에 적합한 품종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건전한 알곡을 얻기 위해서는 파종방법과 수확시기가 중요하다.
- 『홍언』과 『아라리』는 기계수확에 적합하도록 육성된 품종으로, 분지수가 적어 쓰러짐에 강하고 직립형이다. 파종 시에 낮은 위치에서도 예취가 가능하도록 넓은 이랑 줄뿌림을 하는 것이 좋다.
- 건조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예취부에서 손실이 늘어나고 알곡 쪼개짐에 의한 손상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숙기 후 2주일 이내, 종실 수분이 16~18% 되는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 보통형 콤바인으로 수확 시 손실률과 손상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작이 필요하다.
- 콤바인의 리일 갈퀴 방향은 뒤쪽에 두고 속도는 18rpm/분, 탈곡 급동 회전속도는 약 300rpm/분, 흔들체는 최대, 송풍세기는 중간으로 조정하고 0.6~0.9m/초의 작업속도를 유지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추운 겨울, 맥류는 어떻게 관리할까

- 파종 앞두고 저온해·습해 관리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겨울 맥류 파종기를 맞아 맥류에 발생하는 기상재해 유형과 관리방법을 소개했다.
- 겨울 맥류 재배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기상재해 유형으로는 저온해와 습해가 있다.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전·사후 대책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 겨울작물은 대부분 생육기간 전반에 걸쳐 저온해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 저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해 적기에 파종해야 하며, 파종이 늦을 경우에는 파종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피해 시에는 배수구 정비와 답압 등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벗짚, 왕겨 등을 덮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습해는 주로 생육 재생기인 2월 중순~3월 상순과 출수기인 4월 중순~5월 상순에 발생한다.
- 배수가 불량한 논에 비가 5~6일 동안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심한 경우 수량이 50% 이상 감소한다.
-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습성 품종을 선택해 포장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습답일 경우 논 가장자리에 겘도랑(명거) 배수로를 만들어 준다. 피해 시에는 요소비료 1%액을 엽면시비로 2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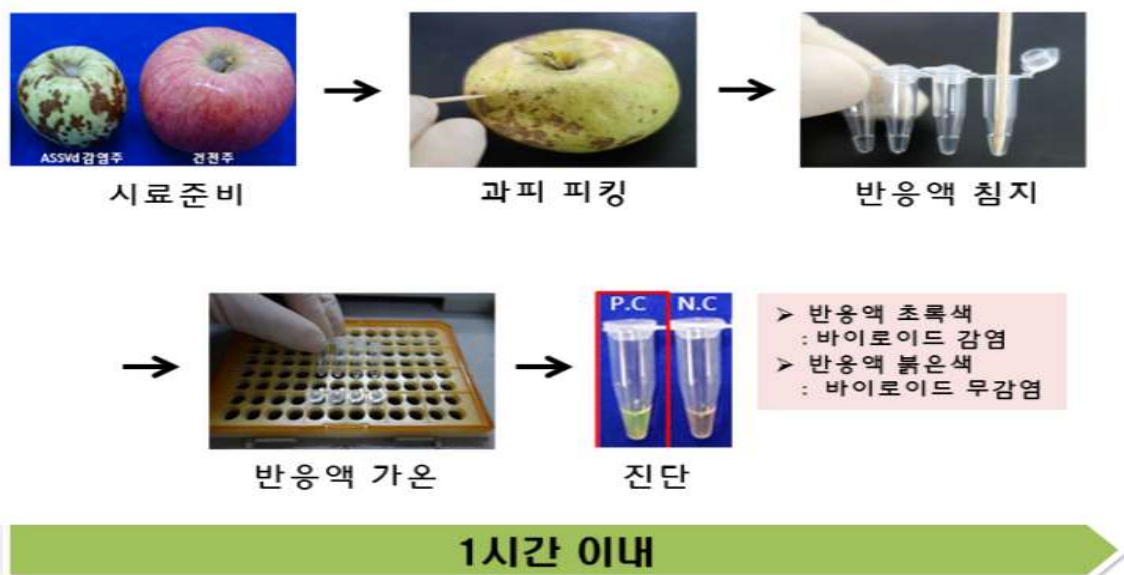
■ 사과 바이로이드, 1시간 만에 간편하게 진단

- 사과 바이로이드 현장진단키트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사과 재배농가에서 문제가 되는 바이로이드를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 사과 묘목은 과실이 달리기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의 재배 기간이 필요하다. 바이로이드 감염증상은 과실이 달려야만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하기에 농가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 사과 바이로이드(Apple scar skin viroid, ASSVd)는 과실의 착색불량, 동녹, 소과 등 이상증상을 일으켜 상품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 바이로이드병은 아직까지 약제에 의한 방제가 불가능하며, 가지 치기할 때나 접목 시 작업도구에 의한 전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 진단키트를 사용할 때는 먼저 바이로이드 감염이 의심되는 사과 껍질을 이쑤시개로 찌른다. 즙액이 묻은 이쑤시개를 키트 반응액에 넣고 65℃ 물에 1시간 동안 처리한 후(미지근한 물에 데워줌) 반응액의 색 변화로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바이로이드는 핵산으로만 구성된 병원체로 휴대가 간편한 스트립 형태의 간이진단키트 개발이 불가능하여 최근까지 중합효소연쇄 반응(RT-PCR)에 의한 진단법에 의존해 왔다.
- 개발된 현장진단키트는 진단하고자 하는 시료를 핵산추출 없이 바로 사용함으로써 기존 5시간 걸리던 진단시간을 1시간으로 크게 단축시켰다.

- 이 진단키트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바이로이드 진단이 가능하다.
- 이번 사과 바이로이드 현장진단키트 개발로 바이로이드병을 조기에 진단함으로써 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내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국가관리 과수 바이로이드병 진단에도 개발된 현장진단 기술을 적용 확대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조인숙 연구사는 “개발된 사과 바이로이드 현장진단키트는 추후 바이로이드 진단 워크숍을 통해 관련 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하여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사과 바이로이드 현장진단키트 사용 방법】

■ 다양한 국산 단감 품종 개발, 골라먹는 재미 쏠쏠

- 9월 하순~10월 하순 수확시기 다양... 단감 소비 활성화 이끌 듯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단감 단일 품종의 편중 재배로 인한 유통·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국산 단감 품종을 개발했다.
-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단감은 1960년대에 일본에서 도입된 『부유』, 『차랑』 등으로 10월 하순에 수확하는 만생종 품종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부유 품종은 전체 재배면적의 82%에 달해 재배 편중이 심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2007년부터 단감 품종 육성과 재배연구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11품종을 개발했다. 그 중 생과로 먹기에 가장 좋은 완전단감 감은 과실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4종류로 분류되는데 완전단감, 불완전단감, 완전뚱은감, 불완전뚱은감으로 나뉜다.
- 먼저, 9월 하순에 익는 조생종 『조완』 (2012년 육성)이 있다. 이 품종은 추석에 주로 유통되는 일본 품종 『서촌조생』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다.
- 서촌조생(당도 13~14.5°Brix)은 불완전단감으로 과실 품질이 떨어지는데 반해 조완 품종은 완전단감으로 당도가 16°Brix 이상으로 높으며 과즙이 풍부해 식미가 매우 우수하다.
- 10월 상순에 익는 『원미』 (2014년 육성), 『원추』 (2015년 육성) 품종은 과실이 크고 식미가 우수하여 조완 이후 소비될 수 있는 품종이다. 이 두 품종은 생리장해 발생이 적어 재배가 쉬운 장점이 있다.

- 10월 중순에 익는 품종으로는 『로망』 (2008년 육성)과 『연수』 (2016년 육성)가 있다. 로망은 당도가 18.6°Brix로 매우 높고 저장성이 좋아 수출용으로 적합하다. 연수도 당도가 17°Brix로 높으며 무엇보다 껍질이 매우 얇고 부드러워 껍질째 먹을 수 있다.
- 10월 하순엔 『감풍』 (2013년 육성) 품종이 나온다. 이 품종은 과실이 크고 식미가 우수하다. 껍질이 터지는 생리장해가 적고 수확 시기가 부유 품종보다 10일 정도 빨라 『부유』 대체 품종으로 손색이 없다.
- 연수 품종을 제외한 나머지 품종의 묘목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어 앞으로 2~3년 후면 시중에서 과실을 만나볼 수 있다. 연수 품종은 4~5년 후에 시중에 유통된다.
- 농촌진흥청은 2020년까지 국산 품종 보급률 10% 달성을 목표로 올해 부터 단감 신품종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앞으로 우리 단감 품종의 보급이 확대된다면 단조로운 단감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소비 활성화, 농가 소득 향상, 그리고 단감 산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기여할 전망이다.
- 또한,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을 보급해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동남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었던 수출시장도 미국·유럽 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원미】



【원추】



【로망】

7 정책 동향



■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이젠 그만

-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대책 수립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 (추진배경)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촘촘하게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장치 마련 필요
- (신청·접수 단계)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의 실경작 확인 강화, 국유지 임차자 서류심사 강화
- (현장점검 단계) 관외경작자 실경작 확인, 농지전용·농지처분명령 농지 등 부적격 농지 검증 강화, 교차·합동점검 실시
- (사후관리 단계) 실경작 위반의심자 대상 비료·종자, 면세유 등 보조금 지원실적과 교차대조로 사후 검증, 부당수령 신고 센터 운영
- (제도 개선) 신고포상금 인상(50 → 100만원), 부당수령 조사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현재는 지자체)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하면 소득 보전

- 전남도, 2018년부터 쌀 생산조정제 확대... ha당 340만원 지원 -
- 전라남도가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도입에 따라 2018년부터 논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기로 했다.
- 이는 최근 계속된 풍작에 따른 쌀 공급과잉 기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3천 평)당 340만원을 지원해 벼와의 소득차를 어느 정도 보전하는 제도다.
-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한 쌀 생산조정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전남의 경우 첫 해인 2018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전국 5만ha의 21.4%인 1만 698ha에서 시행된다. 사업비는 ha당 340만원 기준, 총 360억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가 지원된다.
- 전라남도는 벼 대신 재배하는 작물의 2차 수급과잉 문제가 없도록 사료작물, 콩 등 자급률이 낮아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품목을 위주로 확대 재배토록 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10월 말 정부의 세부시행지침이 확정되면 유관기관 합동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운영해 품목 선정과 종자 확보, 재배 기술 지원 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 쌀 생산조정제는 정부가 지난 2003년과 2011년 두 차례 시행했으며, 전라남도는 올해 자체적으로 802ha에 추진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말까지 80% 완료키로

- 전남도, 2018년 3월까지 100% 달성 위해 담당공무원제 활성화 등 총력 -

- 전라남도가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를 실행하면서 축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연말까지 80%, 2018년 3월 24일까지 100%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다.
- 그 결과 9월 중순 현재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1천 464호 가운데 완료농가는 449호(30.6%), 진행 중인 농가는 307호(21%)로, 추진율이 51.6%다. 3단계까지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3천 531호 가운데 완료농가는 749호(21.2%), 진행 중인 농가는 748호(21.2%)로, 추진율은 42.4%다.
- 전라남도는 1단계 대상 농가의 적법화 추진율을 연말까지 80%, 2018년 3월 24일까지 100% 달성을 위해 축산·환경·건축부서 담당자 중심이 되는 농가별 담당공무원제를 활성화하고 매주 수요일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 2018년 3월 말까지 민관합동 점검계획을 세워 매월 부진 시군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농협·축산단체·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부진 시군 위주로 현장을 점검해 현장 문제는 현장에서 적기에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홍보전단 추가 제작 배포, 지금까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종합 지침서 발간 배포, 독려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나주시, 가축재해보험료 지방비 확대 지원

- 축사 화재, 자연재해, 질병피해로 인한 농가 시름 덜어 -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축사 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지방비를 2회 추경에 확보, 재해보험 가입 전체 농가에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 가축재해 보험료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나주시는 농가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자부담분 25%를 지방비 (도비 10, 시비 15%)로 지원하고 있다.
- 나주시에 따르면 2017년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2월 말까지 총 340농가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중 지방비 지원 농가는 167농가 뿐이고, 나머지 173농가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지방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왔다.
- 이에 나주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 2회 추경에 도비지원분 51,900천원과 시비지원분 77,850천원인 129,750천원을 확보해 지방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 및 신뢰도 회복에 나섰다.
-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소·돼지·말,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총 16종에 해당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 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매실산업특구 2017년 우수특구로 선정돼

- 매실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매실생산 기대 -

- 광양시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실시한 2017년 지역특구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중소기업벤처부장관상과 함께 포상금 3천 5백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전국 186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특구 운영실적과 성과, 자치단체장의 참여의지, 앞으로의 지속 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전문가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거쳐 10개 우수특구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광양시가 포함됐다.
- 시는 그 동안 매실산업 활성화와 광양매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매실생산 재배기술 보급과 지원 확대, 가공제품 개발, 유통과 가공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였다.
- 또 마케팅 활성화와 매실 기능성 연구,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등 특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 이와 함께 TV 프로그램과 CF 등을 제작하는 등 광양매실의 명성과 매실의 유용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려 매실소비 저변 확대에도 힘써오고 있다.
- 특히,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매실산업 등 농업분야에 매년 1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고, 시와 농협, 생산농가가 연합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펼치는 등 고품질 광양매실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확보에도 적극 나섰다.

* 출처 : 광양시

■ 곡성군,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 포장 디자인 교육 실시

- “내가 기른 농산물, 내 손으로 디자인해요” -

- 곡성군(군수 유근기)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농가의 디자인경쟁력을 높이고자 브랜드·포장디자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은 브랜딩 과정 이해하기, 상표등록 절차 및 이해, 상표 관리 및 활용, 내가 짓는 농가 네이밍, 디자인 등 1:1 맞춤 교육으로 진행되며 여성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농가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까지 3회차 진행된 교육은 10월 30일 평가발표회를 마지막으로 종강한다.
- 김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은 관내 여성농업인의 브랜드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정직하게 생산하지만 이름이 없었던 농산물에 농업인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와 상품의 얼굴이 되는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 농가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 곡성군



■ 구례군, 전통시장 가을축제 열려

- 가을맞이 구례 여행은 구례 5일시장과 함께 -

- 구례군은 5일시장 상인회(회장 이을재)에서 10월 8일부터 28일 까지 가을맞이 알뜰 장보기 및 경품 행사 등 『전통시장 가을축제』 행사를 5일시장 일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중 1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경품권을 제공하며, 1등 당첨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구례사랑 상품권을, 2등 당첨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구례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총 2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구례 특산품 중 하나인 감 수확기를 맞이하여 『구례 감 직거래장터』도 운영하며, 다양한 할인행사도 준비하였다.
- 구례 5일시장은 매월 끝자리가 3, 8일인 날에 장이 서는 5일장으로, 각종 생필품과 농·수·축산물이 유통되며, 특히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약재와 나물류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다.

* 출처 : 구례군

2017년 10월 8일 ~ 10월 28일

2017 전통시장 가을축제 행사

다양한 경품 혜택과
알뜰장보기 혜택을
동시에 누리세요



2017 전통시장 가을축제

2017년 10월 8일 ~ 10월 28일 12:00 까지
구례 5일 전통시장

- 대 상 : 구례5일전통시장에서 1만원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점포에서 경품권 지급
- 주 천 : 2017년 10월 28일 오후 1:00
- 추첨장소 : 구례5일전통시장 중앙 4거리(참성청과 앞)
- 경품내용 : 1등(1명) 상품권 300,000원, 2등(2명) 상품권 200,000원, 3등(10명) 상품권 100,000원
참려산(16명) 상품권 50,000원

■ 고흥군, 도시민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행사 인기

- 고흥군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서울·경기·대전 등 도시민 30여명을 초청하여, 고흥군을 알리고 소개하는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행사를 실시했다.
- 매년 3회 100명 이상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초청하여 고흥군을 소개하고 직접적인 농업 체험의 기회를 줌으로써 귀농 의사 결정을 높이고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이번 행사는 귀농하여 유자·석류 등의 소득 작물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견학 및 체험을 통해 농업을 이해하는 기회 제공과 소록도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탐방 등으로 고흥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고흥군(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금년 7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고흥군으로 귀농한 인구는 180가구(300여명)로 전남 최다인 것처럼 알려져 귀농·귀촌의 적격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도시민이 귀농·귀촌 의향 단계에서 이주까지 안정적으로 고흥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본격 가동

- 보성군은 구제역 및 AI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내년 5월까지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보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군청 농축산과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총괄반, 홍보반, 예찰반, 방역지원반, 연락반 등 총 5개반, 19명으로 편성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군은 질병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살처분 현장 지원을 위한 AI 기동방역대 4개반 26명을 사전 구성했으며, 이에 대한 인체 감염 예방 교육 및 살처분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9월말 실시했다.
- 또한, 지난 9월 한달 간 소 2만여두, 돼지 2만 4천여두, 염소 6천여두 등 우제류 5만여두에 대해 공수의를 동원하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완료했다.
- 추후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구제역 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 최근 경북 영천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H7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관내 철새도래지 1개소에 대해 축협 공동방제단 및 군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매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안내 입간판 및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및 인근 농가 방역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아울러, 가금류에 대해서는 오리 입식 사전승인제 운영, 일제 입식·출하 시스템(5일 이내 일제 입식·출하, 휴지기 2주 이상)적용, 사전 폐사체 검사 및 출하전 검사 후 이동승인서 발급 등 엄격한 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 함평군,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 20억 7천만원 군비 지원

- 이달 말까지 인증서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올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1,226농가에 생산장려금 20억 7000만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 생산장려금은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함평군이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액은 ha당(인증면적 기준) △과수 190만원(유기), 100만원(무농약) △채소, 밭작물, 특작 170만원(유기), 90만원(무농약) △벼 150만원(유기), 70만원(무농약) △임산물, 조사료, 기타 90만원(유기), 40만원(무농약)이다.
- 함평군에 거주하는 농민 중 관내 농지에서 올해 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인증서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전체 인증면적 중 벼가 85%로 재고량 증가와 쌀시장 전면개방, 쌀 가격 하락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생산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함평군 친환경 인증면적은 9월말 현재 1,848ha이며 연말까지 100ha 이상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함평군



■ 일본, 선물용 과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 최근 과일, 야채와 같은 일본산 농산물을 관광 선물용으로 구매하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살려 농산물 수출 확대에 연결하고자 관민이 힘을 합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관광객은 귀국일에 맞추어 구입한 농산물을 공항으로 발송한다. 이 때 식물검역이 필요한 경우 배달업자가 수속을 대행한다. 최종적으로 관광객이 공항에서 이를 수령한 뒤, 수하물로써 가지고 귀국하게 된다.
- 이러한 시스템은 농림수산성의 위탁 사업으로 자동차도로 휴게소나 관광농원 등 전국 16시설이 참가 중이다.
- 나리타공항 제2터미널에 소재한 관광 기념품 선물가게는 올 여름 일본산 과일을 시험 판매하였다.
- 중부국제공항에서도 작년 5월 면세점에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코너가 설치되었다. 이용객 중 대부분은 농산물 구매에 문제가 없는 홍콩 관광객이다. 식물검역으로 인해 해외 농산물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국가의 관광객용으로 컵에 담은 과일을 판매하고 있어 공항이나 기내에서 먹는 것도 가능하다.

- 농산물 선물은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착지에 따라 공항 등에서 식물검역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검역 사무소가 공항 빌딩 밖에 위치하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기에 농수성은 15년도부터 출발로비에 검역 카운터를 상설했다. 나리타 및 신치토세(홋카이도)등 5개 공항에서 개설, 농수성은 “이러한 봄을 타서 선물용 일본 농산품 애호가를 늘이고 나아가 수출확대로 연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착지	사과	딸기	멜론	정미	녹차(조제차)
한국	×	○	×	○	○
중국	×	×	×	×	△
홍콩	○	○	○	○	○
타이	△	△	△	△	△
인도네시아	△	△	△	△	△
EU	△	○	○	○	○

※ ○:검역 불필요, 국내 반입 가능, ×:국내 반입 불가,

△:일본 수출검역 합격품에 한해 반입 가능

- 시사점은 실제로 검역의 벽은 낮지 않지만 제도와 선전(PR) 두 가지 측면에서 발판을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용자 수 증대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자국에 반입한 농산물로 인한 장래의 일본산 농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 한국에는 참외·애호박 등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농산물이 다수 존재하므로, 한국 내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역 절차의 단순화 등을 통해 외국 관광객의 구매 편리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미국, 유기농제품 수입규제 더욱 엄격해질 전망

- 농무부 감찰국은 미국으로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의 유기농 인증에 대한 규제가 미국 유기농 인증의 규제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체가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수입 통관 시 철저하게 검열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성이 대두됐다. USDA는 유기농 제품의 규제 및 인증을 관리하고 있는 마케팅 지원청이 수입통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권이 주어져야 하며, 세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2018년 7월까지 유기농제품이 엄격하게 통제돼 수입될 수 있도록 해당 절차를 계획할 것 역시 제시했다.
- 현재 미국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은 USDA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유럽연합·일본·한국·스위스와는 유기농 인증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인증 받은 유기가공 식품은 한미 유기농 인증 상호 동등성 협약에 따라 협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양국 어디에서든지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다.
- 2012년부터 미국은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에 대해 Import Certificate를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찰국 레포트에서 유기농으로 표시된 제품 수입 시 해당 제품이 실제로 협정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는 미국의 규제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USDA가 향후 각국의 유기농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관련 규제 강화를 시행할 예정임이 예측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10. 16. 시카고 선물거래소)

□ 미 농무부 수확량 보고와 수출 실적으로 인해 상승한 대두 선물가격

○ 밀 선물시장 시황(▲2.1%)

- 밀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2.1% 상승하였다. 예상보다 못한 주간 밀 수출 판매량은 이러한 상승세를 제한하였는데, 지난 주 미 농무부가 밀 수출이 30만톤에서 50만톤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실제 주간 판매량은 17만 5,000톤을 기록하며 기존 전망을 하회하였다.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1.0%)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1.0% 상승하였다. 지난 주 미국의 옥수수 수출 판매량은 160만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예상 범위인 80만톤에서 110만톤 사이를 훨씬 상회하는 양으로, 옥수수 선물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 대두 선물시장 시황(▲0.8%)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8% 상승하였다. 미 농무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2017 대두 수확량과 2017/18 대두 기말 재고량 전망을 하향 전망하면서 대두 선물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한농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 원서접수

- 10월 10일(화)부터 23일(월)까지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382명 모집 -
-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김남수)은 2017년 10월 10일(화) 오전 9시부터 23일(월) 오후 6시까지 2018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진학사, www.jinhakapply.com)을 통해 진행하며, 382명을 선발한다.
- 일반전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예정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 학과별로 식량작물학과 28, 특용작물학과 21, 버섯학과 21, 채소학과 28, 원예환경시스템학과 28, 과수학과 28, 화훼학과 21, 산림학과 17, 조경학과 17, 한우학과 28, 낙농학과 14, 양돈학과 17, 가금학과 17, 말산업학과 17, 산업곤충학과 17, 수산양식학과 21, 농수산물가공학과 21, 농수산물비즈니스학과 21명을 선발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7 국제농업박람회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2017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전라남도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17. 10. 26. ~ 11. 5.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2017국제농업박람회를 소개합니다♡



주 제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Agriculture changes the world)

기 간

2017.10.26.(목) ~ 11. 5.(일) 11일간

장 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행사규모

20개국 380개 기관·단체·기업, 관람객 45만명

주요내용

- 생동감이 살아 있는 수준 높은 전시 연출
- 생물콘텐츠로 구성되는 오감만족 체험학습
- 농산업 수익 및 경쟁력 증대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매칭
- 미래농업 시장과 함께하는 국내·국제 학술행사

아시아 최고의 농산업 비즈니스 박람회 지향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전남도, aT와 함께하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2회 개최

[국내바이어초청 구매상담회] 현대, 롯데, 이마트 등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채널 MD들과 함께하는 상품입점 품평회 개최

[현존하는 농식품, 농기가재와 미래 먹거리 관람객 현장구매] 국내외 대표 농기자재기업, 농식품, 고부가치 농산업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B2C홍보판매마당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씨앗, 내일을 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 상강[霜降]

- 24절기 중 열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한로(寒露)와 입동(立冬) 사이에 오는 절기로 양력 10월 23일 무렵, 음력으로는 9월에 든다.
- 이 시기는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이다. 따라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한다.
- 중국에서는 상강부터 입동 사이를 5일씩 삼후(三候)로 나누어 초후(初候)는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는 때, 중후(中候)는 초목이 누렇게 떨어지는 때이며, 말후(末候)는 겨울잠을 자는 벌레들이 모두 땅속에 숨는 때라고 한다.
- 이때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국화도 활짝 피는 늦가을의 계절이다. 중구일과 같이 국화주를 마시며 가을 나들이를 하는 이유도 이런 계절적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상강에 주로 먹는 음식으로 찹쌀가루를 물에 넣어 반죽하고 둥글고 납작하게 빚은 다음 국화꽃잎을 올려 기름에 지져 만든 국화전과 향긋한 국화차를 마셨다고 한다.
- 상강과 관련된 속담으로 『상강 90일 두고 모 심어도 잡곡보다 낫다』는 벼농사가 다른 잡곡보다 낫다는 말이고, 『한로, 상강에 겉보리 파종한다』는 북부 산간지방에는 보리의 안전 월동을 위해 한로에 보리파종을 해야 하며, 늦어도 상강 전에는 파종을 마쳐야 한다는 말이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155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